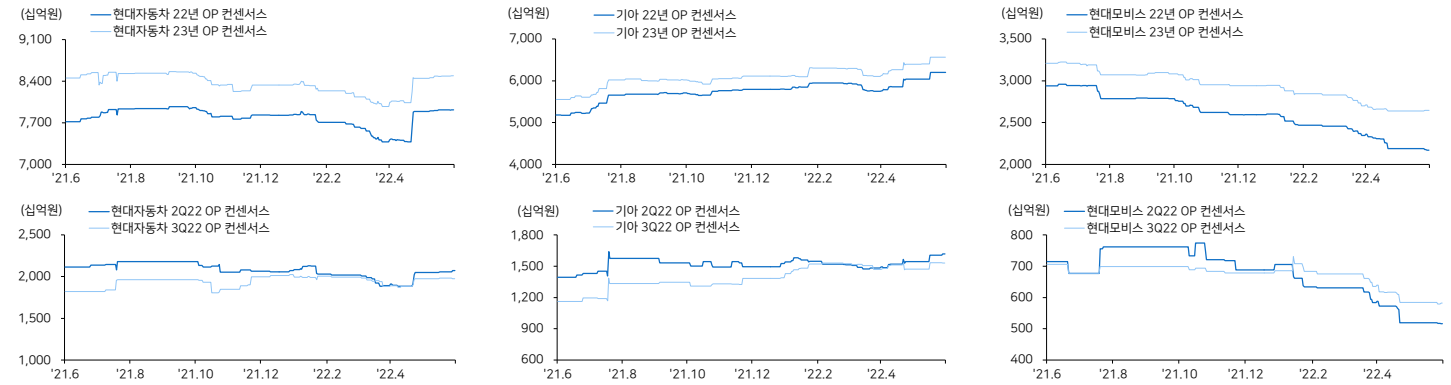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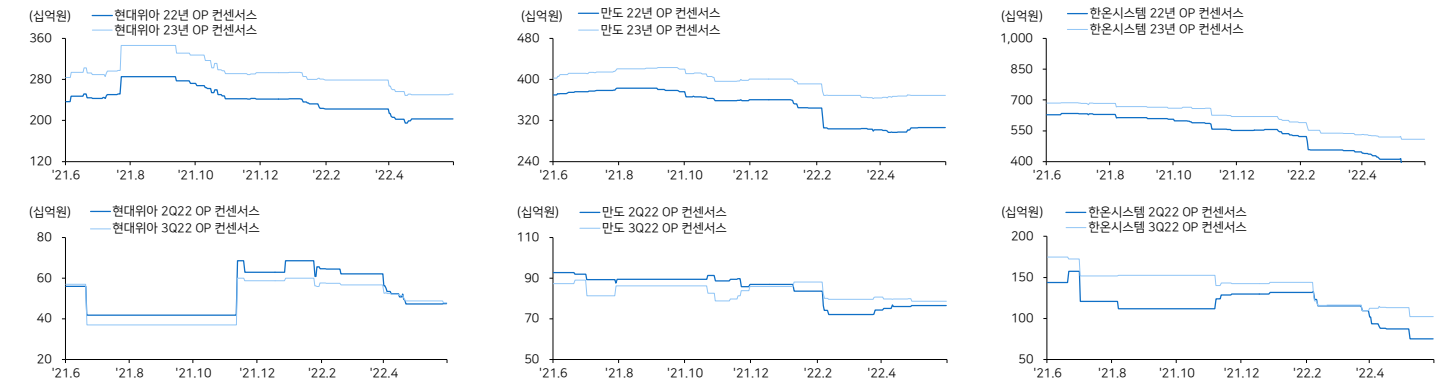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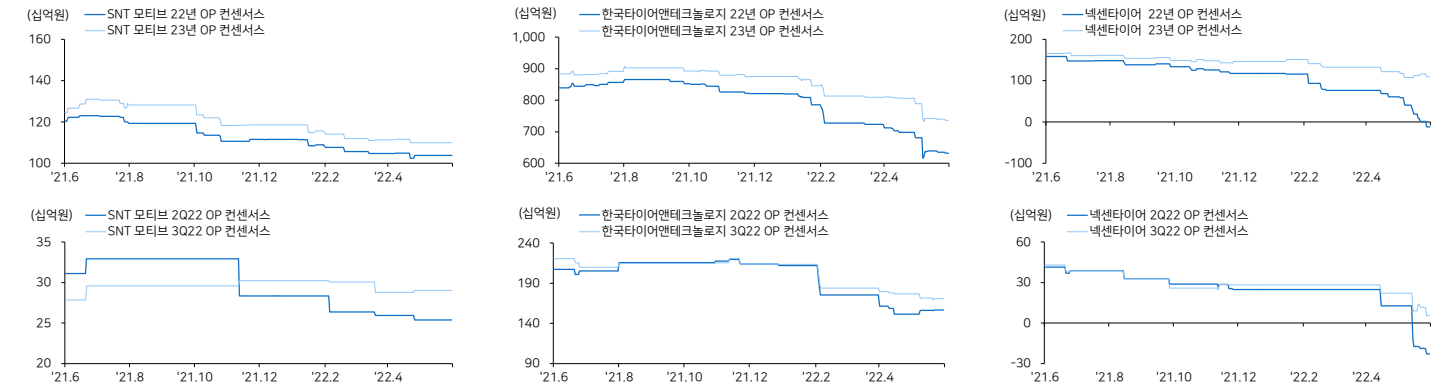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지난달 미국 판매량 32% 급감 (조선일보)

현대차 5월 미국 판매는 yoy -31.9% 감소, 기아 미국 판매는 -27.8% 감소함. 미국 판매 1위인 토요타는 -27% 감소. 현대차 글로벌 판매는 -0.5% 감소한 32.4만대를 기록, 기아 글로벌 판매는 -4.9% 감소한 23만대를 기록함.
<https://bit.ly/3NT2koG>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 8100명 고용 예상...평균 연봉 7200만원 (뉴스1)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에서 8,100명을 고용하고 연 7,200여만원(시급 28달러)의 평균 급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현지언론이 보도. 기아 조지아 공장 시급은 17.25달러,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시급은 25달러로 알려졌다.
<https://bit.ly/3akT0eN>

China's Geely launches first nine low-orbit satellites for autonomous cars (Reuters)

지리자동차는 지난 수요일 첫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자율주행차량에 보다 정확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위성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9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에 쏘아올림. 길리는 '25년까지 63대 위성 발사를 계획.
<https://reut.rs/3aEamUk>

Ford to invest \$3.7 bln for production of EVs, gas-powered vehicles (Reuters)

포드는 미시간/오하이오/미주리주의 공장에서 ICE/EV 생산을 위해 37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힘. 23억달러가 EV에 사용될 것이며, 미시간 1.5억 달러/오하이오 2억 달러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38YFwHr>

중국 전기차 3대 토종기업, 코로나에도 5월 실적 '호조' (연합뉴스)

중국 전기차 3인방(Li Auto, NIO, Xpeng)의 5월 판매가 MoM, YoY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5월 판매량은 각각 Li Auto는 11,496(yoy +160%), NIO는 약 7천대(+4.7%), Xpeng은 10,125(+78%)대를 기록함.
<https://bit.ly/3NOLSG1>

현대차, LNG 발전소 건설계획 잠정 보류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내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노조의 반대로 인해 잠정 보류함. 노조는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포함된 고용·투입 계획이 빠져 고용 유발 효과가 없다며 반대해왔음.
<https://bit.ly/3t8pi3m>

Ford CEO Thinks Automotive Industry is Headed For "A Shakeout" (InsideEVs)

Ford CEO Jim Farley는 차량 직접판매, 전통 딜러모델 중단, 신규 EV업체 등장이 향하는 방향이 미국에서 더 나은 영업환경을 마련할 것이므로 '신규 중국업체'에게 유리하다고 언급. 빠른 전동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업체는 도태될 것.
<https://bit.ly/38YFwMF>

Self-driving cars from GM's Cruise could soon carry paying riders in San Francisco (Reuters)

샌프란시스코 공무원(소방서, 경찰 등)은 안전 문제로 GM Cruise의 자율주행차 승차공공사업 규제를 원하지만, 목요일 당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는다던 최초의 요금 청구 로보택시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됨.
<https://reut.rs/3NfUwX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